

학교 경제교육을 위한 경제역량 탐색

박영석* · 한경동** · 김재근*** · 김경모****

【요약문】 경제역량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경제역량으로 논의되는 주요 역량사례들에 대한 전문가 조사를 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문가들이 선호한 경제역량은 의사결정역량, 문제해결역량, 지식정보처리역량이었다. 이 역량들은 경제학습이 전통적으로 추구한 역량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역량들을 별개의 독립적인 역량으로 볼 것인지, 이들을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는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제역량으로 부적합하게 여겨진 것은 심미적 감성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공동체 역량이었다. 경제과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동체 역량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은 경제 교육에서 시민과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경제역량 설정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총론의 핵심역량이나 사회과 교과 역량 등과 위계설정이 쉽지 않은 점, 역량들 간의 차별성과 위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드러났다. 경제역량에 대한 탐색은 경제교육의 정체성과 방향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제어】 경제역량, 핵심역량, 경제교육과정, 학교경제교육

* 제1저자,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과교육과 교수(yspark@ginue.ac.kr)

** 한국외국어대학교 경제학과 교수(khahn@hufs.ac.kr)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부연구위원(jaegun@kice.re.kr)

**** 교신저자, 경상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kmkim@gnu.ac.kr)

I. 서론

최근 학교 교육과정 관련 논의의 화두 중 하나는 핵심역량이다. 핵심역량이 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대두된 배경은 OECD의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에서 미래 교육을 위한 방향으로 핵심역량을 제시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OECD 연구에서는 핵심역량을 정의하고 선별하였다(OECD, 2005). 이후 여러 나라의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교육을 하려는 시도가 확산하면서 교육에서 핵심역량이 이슈가 되었다.

그러나 핵심역량 혹은 역량은 정의가 어려운 모호한 개념이다. 역량은 직업 혹은 직무 수행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필요한 일련의 자질이나 기능을 뜻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교육 관련 연구에서는 핵심역량을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대한 일종의 대응 능력으로서 접근하고 있다. 핵심역량을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총체적인 능력, 학문적 지식을 넘어서 개인이 문제를 헤쳐나가는 데 필요한 능력, 사회적 환경/맥락에 걸맞게 살아가는 능력, 특정 직업이나 직무에 요구되는 구체적인 능력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일반적인 능력으로 보는 것이다(손민호, 2011; 소경희 외, 2013).

교육에서 역량이 유행하게 된 배경은 기존의 지식 중심의 탈맥락적인 학습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반성에서 출발하였다. 각 교과 영역에서 중요한 내용을 학습하고 그 지식을 시험으로 평가하는 교육을 과거 교육으로 여기고, 21세기 사회에서는 학문에 토대를 둔 전통적 지식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능력, 창의성과 같은 새로운 역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Trilling and Fadel, 2012). 가속화되는 경제적·사회적 광범위한 환경변화로 기존의 교육 체계로는 학습자가 필요한 능력을 갖추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이 역량기반교육이라는 것이다. 역량기반교육은 관점의 전환을 추구하는 것이다. 교육공급자의 투입보다는 학생역량이라는 산출에 비중을 두고, 절대적인 지식의 소유보다는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을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는 개인들의 수행성에 비중을 둔다(손민호, 2011; 이봉재, 2013).

교육 환경이 변화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라 할 수 있다. 역량 혹은 핵심역량은 국가 수준의 교육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각각의 교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것이 타당한

가?, 교과외의 하위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각 과목은 역량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점을 고민하게 된다. 이에 대해 최근 연구들에서는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 설계가 기존 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았던 지식, 기능, 가치·태도와 학생의 행위주체성 모두를 총체적, 구체적, 섬세적으로 담아내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함이 강조되고 있다(박은아, 2020; 이상은·소경희, 2019).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준의 교육 또는 교육과정 총론수준에서 거론되는 핵심역량논의를 각각의 개별 교과 및 과목에서 구체화하는 타당한 방식이 무엇이며, 특정한 역량을 선택하고 제외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탐구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본 연구의 대상이라 할 수 있는 경제 과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2015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경제 과목에서 추구하는 역량의 목록은 제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논거까지 교육과정문서에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경제 학습에서 역량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에서 출발하였다. 학교 경제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과정을 검토하고 개선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데 교육과정이 역량을 중심으로 편성된다고 하면 경제교육에서 추구해야 하는 역량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역량과 관련한 개념이 모호하고 교육과정 실행이 역량을 실제로 반영하고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경제 학습에서 역량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학교 경제교육과정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설득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우선 기존의 핵심역량 혹은 경제역량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확인하고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경제역량에 대한 접근의 실마리를 얻기 위해 역량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었다. 이러한 목적으로 개발한 조사지를 활용해 전문가들 의견을 조사한 후에 그 결과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 경제교육을 위한 경제역량에 대한 쟁점들을 분석하였다.

II. 핵심역량과 경제교육과정

1.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과정

오늘날 사회는 지식기반사회로 지식과 정보의 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종래처

럼 많은 양의 지식을 소유하는 것보다 질 높은 지식을 선별하고 그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래사회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교육 방향과 관련하여 역량기반 교육과정이 강조되며,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OECD의 역량에 대한 연구 및 역량 관련 논의가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에 주목하는 계기가 되었다.

OECD의 DeSeCo 연구(2005, p. 4)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의 응집은 우리 모두의 역량에 달려있으며, 역량은 지식, 기능, 가치 태도를 포괄한다.”라고 밝혔다. 이 연구에서는 역량을 크게 ‘상호작용적 도구활용’, ‘이질적 집단에서의 상호작용’, ‘자율적 행동’의 세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범주마다 하위 범주를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핵심역량은 다양한 맥락에서 작동하며 맥락별로 작용하는 역량의 조합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OECD는 근래에 2030 핵심역량 교육과정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역량을 확대하여 28개의 역량을 중심으로 국가별로 교육과정에 반영된 수준을 확인하고 비교하는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OECD, 2018).

<표 1> 외국의 학교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핵심역량(예)

국가	핵심역량
독일 헤센주	공통역량으로 개인적 역량, 사회적 역량, 학습 역량, 언어구사역량 등을 제시하고 이를 학교급 및 교과별로 구분하여 적용
뉴질랜드	8개 교과기반 학습영역을 설정하고 이 속에서 5개의 핵심역량(사고하기, 언어 상징 텍스트 활용하기, 자기관리하기, 타인과 관계 맺기, 참여와 공헌하기) 함양을 추구함
캐나다 퀘벡 주	범교과적 역량(지적 역량, 방법론적 역량, 개인적 사회적 역량, 의사소통관련역량), 포괄적 학습영역(환경의식 및 소비자 권리와 책임, 미디어 리터러시, 시민성과 공동체 삶) 및 교과의 3개 범주를 제시하면서도 이들 간의 상호 연계를 강조
영국	사고역량(창의적, 비판적 사고, 문제해결 등), 학습역량(문해력, 수리력, ICT, 문제해결, 의사소통 등), 개인역량과 자질(의사소통, 도덕적, 사회적 역량, 고용자격 등)을 핵심역량으로 제시
프랑스	7가지 기초지식과 기초능력으로 모국어 구사능력, 외국어 구사능력, 수학의 주요 사항과 과학기술지식, 정보통신기술의 숙달, 인본주의 소양, 사회성 및 시민의식, 자율성과 주도성을 제시

자료: 구정화 외(2019, p. 33)

이러한 맥락에서 주요 국가들은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국가 수준의 역량기반 교육 과정을 <표 1>과 같이 만들어 가고 있다(이근호 외, 2013; 구정화 외, 2019). 국가별로 혹은 국가 내의 주요 주별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지만, 학교 교육과정에서 핵심역량을 강조하는 추세는 일반적인 경향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핵심역량을 명시적으로 도입하였다. 핵심역량을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학습자에게 요구되는 지식, 기능, 태도의 총체를 말하는 것으로, 학교 교육을 통해 모든 학습자가 길러야 하는 기본적인, 필수적이며, 보편적인 능력”으로 정의하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한 핵심역량은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이다(교육부, 2015, p. 2).

<표 2> 한국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6가지 핵심역량

핵심역량	의미
자기관리 역량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지식 정보처리 역량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창의적 사고 역량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
심미적 감성 역량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
의사소통 역량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능력
공동체 역량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영향으로 사회과 교육과정에서도 역량이 제시되었다. 사회과의 역량은 ‘교과 역량’으로 불리며, 총론과 다르게 <표 3>과 같이 제시되었다(교육부, 2018, p. 3). 사회과 교과역량은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해

결력 및 의사결정력’, ‘의사소통 및 협업능력’, ‘정보 활용 능력’으로 5개이다. ‘창의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정보 활용 능력’은 총론의 핵심역량과 동일하게 제시되고 있다. 동일한 역량이 총론과 사회과 교과에서 어떻게 다르게 혹은 같게 접근되어야 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특히 사회과에서는 역사/한국사의 역량과 통합사회의 역량이 사회과 역량과 별도로 제시되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

<표 3>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사회과 교과역량

교과역량	의미
창의적 사고력	새롭고 가치있는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능력
비판적 사고력	사태를 분석적으로 평가하는 능력
문제해결력 및 의사결정력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능력
의사소통 및 협업능력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타인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
정보 활용 능력	다양한 자료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해석, 활용, 창조할 수 있는 능력

2. 경제교육과정과 역량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경제’는 사회과 교과에 편성된 선택과목의 하나이다. 경제 과목에서 핵심역량이나 역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경제 과목의 ‘성격’ 소개에서 위에 제시한 역량 관련 요소를 ‘능력’이라는 용어로 표현하여 종합적인 문장으로 서술하였다. 경제 과목에서 추구할 능력으로 ‘정보활용능력’,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능력’, ‘협업능력’, ‘문제해결력’을 예시하였다(교육부, 2018, p. 218).

“경제 과목에서 학습자는 다양한 경제 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경제 정보를 수집·분석할 수 있는 정보 활용 능력과 사태를 분석적으로 평가하는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한다. 또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경제적 쟁점과 문제에 관심을 두고 이를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문제 해결력을 기른다.”

사회과 교육과정에 제시한 역량들 중에서 경제 과목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창의적 사고력’, ‘의사결정력’이다. 경제 과목의 목표 부분에서 창의적 사고와 의사결정능력 관련하여 간접적인 서술은 있다.

- 가. 경제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경제의 운영원리를 이해하고, 경제 현상에 내재된 인과 관계를 설명하며, 미래의 경제 변동을 전망하여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 나. 국내외 사회·경제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여 개인과 공공의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KDI에서는 2017년 ‘생애주기별 핵심 경제역량 연구’를 하였다. 경제교육 수요자 입장에서 생애주기별(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경제교육 핵심 내용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제교육을 통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핵심 경제역량을 도출하였다(한국개발연구원, 2017). 생애주기별 핵심경제역량은 경제교육을 통해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고, FGI를 통해 생성된 의미범주(생애주기별 경제교육 핵심내용)를 관련 있는 주제로 묶어 생애주기별 핵심역량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핵심역량은 아래의 <표 4>와 같이 총 6개였다. 아동기와 청소년기는 이들 중에서 ‘소비(지출) 관리역량’, ‘자산 관리 역량’, ‘진로 탐색역량’, ‘위기 관리 역량’ 네 개였다. ‘변화 대응 역량’과 ‘노후 대비 역량’은 청소년기 이후 청년기, 장년기와 노년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표 4> 생애주기별 핵심 경제역량의 의미

핵심 경제역량	의미
소비(지출) 관리 역량	자신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소비(지출)하며, 다양한 지출 수단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자산 관리 역량	노동 등을 통해 얻은 소득을 관리하고,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부채와 신용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진로 탐색 역량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여 설계하고, 자신의 적성과 비교우위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핵심 경제역량	의미
위기 관리 역량	자신에게 닥칠 위험에 대비하고, 자신의 경제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며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변화 대응 역량	자신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 정책, 법, 제도, 경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노후 대비 역량	노후 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후 대비 계획을 수립 및 실천하며, 관련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독일의 경제교육표준(2010)에서는 ‘경제 역량(economic competences)’ 개념을 명시적으로 사용하였다. 현대사회에서 경제의 중요성을 증가하고 있고, 경제적 도전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삶에서 부딪치는 상황들은 경제적 역량을 필요로 한다고 보고, 경제교육을 위한 역량 모델을 제시하였다. 경제교육의 역량을 <표 5>에서와 같이 역량 영역(competence areas)으로 구분하였다.

<표 5> 독일 경제교육의 역량 영역과 생활의 상황

역량 영역	생활의 상황		
	소비자	소득자	시민
의사결정과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제적으로 형성된 상황을 분석함 행동의 결과들을 분석하고 평가함 행동의 과정을 인식함 		
관계와 상호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분석함 협력을 분석하고 평가함 관계 구조를 분석함 		
질서와 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을 분석함 경제적 체제와 규제 질서를 분석함 정책을 경제적으로 평가함 		

독일 역량 표준에서는 역량 영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는데, 역량 영역으로 ‘의사결정과 합리성’, ‘관계와 상호작용’, ‘질서와 체제’가 제시되었다. 그러나 역량 영역에 포함된 내용을 역량으로 바로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 독일의 연구에서는 역량을 인지적 차원으로 제한하였다. 이 역량 영역의 하위 영역들은 학교 교육

목표에 의해 도출되었으며, 개인적 맥락, 사회적 맥락(간 주관적, inter-subjective, 사회집단), 집합적 행동의 추상화된 체계인 ‘체계와 질서(사회)’ 맥락으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개인의) 의사결정과 합리성,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와 상호작용, (전체적인) 질서와 체계로 범주화된다. 그리고 이것은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되는 역할과 결합된다. 경제적 역할에는 ‘소비자’, ‘소득자(임금소득자, 자영업자)’, ‘경제적 시민’을 전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역량의 범주를 내용(subject matter) 요소보다는 관점을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관점은 개인적, 상호적, 공동체적 관점이다. 그리고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 물론 이들이 의지와 동기와 사회적 측면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프로젝트의 초점을 인지적 측면에 맞추어 시작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및 방법

경제 역량이 무엇인지, 경제 역량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를 하였다. 전문가 13인이 조사에 참여했다. 경제학 및 경제교육전문가 5인, 사회과교육전문가 2인, 교육과정전문가 1인, 경제연구기관전문가 2인, 교육연구기관전문가 3인이었다.

전문가들은 제시된 조사지에 적합한 역량의 순위를 기입하고, 개발된 역량의 적절성을 5단계 척도로 평가하였다. 그리고 적합 혹은 부적합하게 판단한 이유를 자유롭게 개방적 서술로 기록하였다. 전문가 조사는 2020년 6~7월에 이루어졌다.

2. 조사 도구

이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조사지에 포함하였다. 우선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역량 사례들을 경제역량의 관점에서 판단할 때 적합한가를 평가하도록 하였고, 다음으로 연구진이 제시한 경제역량(안)에 대해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첫째, 기존 국내 연구에서 제시된 역량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들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경제역량으로서 적합성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경제 역량의 정의나 특성 등

에 대한 합의된 견해가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경제교육 관련 역량으로 언급되는 다양한 역량들의 역량 간 포괄 관계나 그 타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경제 과목에서 제시된 역량은 ‘능력’으로 표현되었고, 사회과 교육과정에서 사용하는 ‘교과 역량’, 교육과정 총론에서 제시하는 ‘핵심역량’과 용어상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II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론, 사회과, 경제 과목에서 동일한 용어가 사용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용어 표현 방식을 따지지 않고 ‘역량’으로 표현하여 함께 비교하였다. 전문가들에게 제시할 역량의 출처는 <표 6>과 같이 고등학교 경제 과목의 교육과정, 2015 사회과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 총론, KDI 연구(2017)였다. 이 연구들에서는 <표 6>에서와 같이 다양한 역량을 제시하고 있었다.

<표 6> 우리나라 교육과정과 KDI 연구에 제시된 역량

구분	역량	
고등학교 ‘경제’ 과목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보활용능력 의사소통능 문제해결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판적 사고력 협업능력
2015 ‘사회과’ 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적 사고력 의사소통 및 협업능력 문제해결력 및 의사결정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판적 사고력 정보 활용 능력
2015 교육과정 ‘총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기관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의사소통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 정보처리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공동체 역량
KDI 연구(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비(지출) 관리 역량 진로 탐색 역량 변화 대응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산 관리 역량 위기관리 역량 노후 대비 역량

위에 제시된 역량을 토대로 유사한 것을 재분류하여 전문가들이 경제역량으로 적합성을 판단할 15개의 역량을 <표 7>과 같이 제시하였다. 전문가들은 이 역량들에 대해 경제역량으로서 적합성에 비추어 순위를 매겼다. 그리고 제시된 15가지 역량들 중에서 경제역량으로서 적절한 것 2~3개 사례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였으며, 제시되지 않은 새로운 역량을 제시하거나 수정하여 제시할 수 있었다. 또한 적절하지 않은 것도 2~3개 사례를 제시하고 그 이유를 제시하였다.

<표 7> 전문가 조사용 역량

역량	의미
① 자기관리 역량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② 지식정보처리 역량 (정보활용 역량)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③ 창의적 사고 역량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
④ 심미적 감성 역량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
⑤ 의사소통 역량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능력
⑥ 공동체 역량	지역, 국가, 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갖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⑦ 비판적 사고 역량	사물, 상황, 지식 등의 신뢰성, 정확성, 진위 여부 등을 평가하고, 논리적 일관성과 논증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능력
⑧ 문제해결 역량	사회현상과 문제를 탐구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문제해결과정 전반을 평가하는 능력
⑨ 의사결정 역량	선택 가능한 대안 중 가장 적합한 방안을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능력
⑩ 협업 역량	타인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협력하는 능력
⑪ 소비(지출) 관리 역량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소비(지출)하며, 다양한 지불수단의 장단점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⑫ 자산 관리 역량	노동 등을 통해 얻은 소득을 관리하고,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적합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부채와 신용을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능력
⑬ 진로 탐색 역량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여 설계하고, 자신의 적성과 비교우위에 있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⑭ 위기 관리 역량	자신에게 닥칠 위험에 대비하고, 자신의 경제적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며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
⑮ 변화 대응 역량	자신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부 정책, 법, 제도, 경제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둘째, 연구진이 제시한 경제역량(안)에 대해 전문가가 평가하도록 하였다. 연구진이 제시한 경제 역량(안)은 II장에서 제시한 독일의 경제역량표준을 토대로 하였다. 독일 경제역량표준은 본 연구진이 탐색하고자 하는 ‘경제’와 ‘역량’의 관계에 대해 본격적으로 탐구해본 거의 유일한 선행연구였기 때문에, 경제역량에 대한 이번 연구의 출발점으로 독일의 경제역량표준이 자연스럽게 선택되었다. 또한 독일의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역량 영역인 ‘의사결정과 합리성’, ‘관계와 상호작용’, ‘질서와 체제’는 국내에서 경제교육과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는 역량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있었다. 우선 ‘의사결정과 합리성’ 부분은 ‘의사결정 역량’과 관련이 있었고, ‘관계와 상호작용’은 ‘협업 역량’과 관련이 되며, ‘질서와 체제’는 사회 전반을 고려

<표 8> 연구진이 제시한 경제역량(안)

역량	하위요소	하위 요소 관련 내용
의사결정 역량	상황분석 능력	경제적 상황에서 행동의 유인과 제약조건을 분석하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
	대안평가능력	대안적 행동의 결과를 예상하고 상충적인 경제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
	해결방안형성능력	경제 관련 요인들이 서로 다른 경제 주체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경제적 행동의 결과를 파악하는 능력
협업과 상호작용 역량	이해관계 분석 능력	경제적 상호작용에 내재하는 이해관계를 파악하고 경제주체들(기업가, 노동자, 주주, 기타 이해당사자 등)의 기능적 관계를 구분하는 능력
	협력과정 평가 능력	다양한 형태의 경제적 분업을 이해하고 개별적/집합적 수준의 협업에서 나타나는 문제(거래비용, 정보 불평등 등)와 경제적 관계의 사회적 영향을 파악하는 능력
	관계문제 해결 능력	경제적 거래에 대한 규제의 근거와 규제 설정에 당사자 참여의 효과를 파악하고, 경제적 갈등의 해결 방안을 찾는 능력
경제 공동체 참여 역량	시장경제이해 능력	경제체제로서 시장경제의 원리와 분업의 발전, 기업가 정신의 관련성을 설명하고 시장실패의 형태와 원인을 파악하는 능력
	경제체제문제 분석 능력	경제체제를 비교 분석하고 사회적 시장경제의 구성 요소와 원리를 고려하고 개인적, 기술적,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요소의 연결과 대립 및 정부 실패의 경제적 결과를 파악하는 능력
	경제공동체 시민참여 능력	정부개입의 효과를 파악하고, 형평성, 자유(효율성), 정의,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경제 질서를 평가하고, 시사적 역사적 맥락에서 시민의 경제적 행동과 그 영향을 파악하여, 경제공동체 형성에 참여하는 능력

하는 시각이면서도 경제를 정치와 연결하여 접근한다는 점에서 ‘공동체 역량’, ‘비판적 사고’와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독일의 경제역량 모델도 경제역량의 정의를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역량과 관련된 관점을 개인, 집단, 사회 전체로 확대하며 검토하도록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연구진이 수정하여 제시한 경제역량(안)은 <표 8>과 같다. 여기에 제시한 3개의 역량이 경제역량으로 어느 정도 적합한지를 5단계 척도(매우 적합 ~ 매우 부적합)로 답하도록 하였고, 적합/부적합 판단을 한 이유와 문제점 및 개선 방향을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경제역량의 하위 요소 각각에 대해서도 역시 5단계 척도로 평가하고 문제점과 개선점을 기술하도록 하였다.

IV. 연구 결과

1. 경제 역량에 대한 전문가 조사결과

1) 기존 역량의 경제역량 적합성에 대한 전문가 조사결과

기존 역량의 경제역량 적합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응답 결과는 <표 9>와 같다. 적합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 근거와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도 함께 분석하였다.

첫째, 경제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역량으로서 적합하다는 반응이 높은 것은 ‘의사결정역량’, ‘문제해결역량’, ‘지식정보처리역량(정보활용역량)’이었다. 선택한 이유에 대한 개방형 기술에서 ‘의사결정역량’은 경제활동에서의 선택과 관련하여 강조되었다. 경제교육에서는 경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선택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제해결 역량’은 경제주체가 당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역량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지식정보처리역량(정보활용 역량)’은 지식의 습득과 활용이 경제 문제에 대한 이해와 의사결정에 필수적이고, 경제적 선택 상황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파악하는데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었다. 그런데 이 세 역량의 관련성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경제 행위자가 지식과 정보를 토대로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세 가지 역량은 상호 연관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오히려 의사결정, 문제해결, 비판적 사고 등의 역량은 중복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표 9> 기존 역량의 경제역량 적합도에 대한 전문가 조사결과

역량	전문가													평균	순위
	A	B	C	D	E	F	G	H	I	J	K	L	M		
① 자기관리 역량	8	12	11	10	11	2	10	9	1	1	5	5	8	7.15	6
② 지식정보처리 (정보활용) 역량	1	5	1	9	4	1	8	8	5	2	1	3	7	4.23	3
③ 창의적 사고 역량	5	8	14	8	5	9	9	14	14	14	14	9	9	10.15	13
④ 심미적 감성 역량	15	15	15	14	15	15	15	15	15	15	15	15	15	14.92	15
⑤ 의사소통 역량	6	4	5	3	13	7	13	5	3	7	12	10	11	7.62	7
⑥ 공동체 역량	9	14	13	1	14	3	12	11	7	13	13	11	14	10.38	14
⑦ 비판적 사고 역량	4	3	2	4	10	5	7	6	8	5	2	4	10	5.38	4
⑧ 문제해결 역량	2	2	4	5	6	4	6	1	6	6	4	2	4	4.00	2
⑨ 의사결정 역량	3	1	3	6	7	6	5	2	2	3	3	1	1	3.31	1
⑩ 협업 역량	7	13	12	2	12	8	11	12	4	4	11	12	13	9.31	10
⑪ 소비(지출) 관리 역량	13	11	6	7	1	13	2	4	9	9	6	6	3	6.92	5
⑫ 자산 관리 역량	14	10	8	15	2	14	4	3	11	11	7	7	2	8.31	8
⑬ 진로 탐색 역량	10	9	10	13	3	12	14	10	10	8	10	8	12	9.92	12
⑭ 위기 관리 역량	11	7	7	12	8	10	3	7	12	10	8	13	6	8.77	9
⑮ 변화 대응 역량	12	6	9	11	9	11	1	13	13	12	9	14	5	9.62	11

주: A-M은 전문가를 익명으로 표시한 것이고, 수치는 전문가가 역량에 대해 평가한 순위임

둘째, 경제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역량으로서 적합성이 낮게 평가된 것은 ‘심미적 감성 역량’, ‘공동체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이었다. 평가 관련 전문가들의 기술을 살펴보면 ‘심미적 감성 역량’은 경제 과목의 성격과 관련이 적고 인문학이나 예술 등에서 기르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다. ‘창의적 사고 역량’도 필요한 역량이기는 하지만 경제 영역에서 굳이 강조할 역량은 아니라는 것이다. ‘공동체 역량’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가 있었다. 경제학의 원리는 개인들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이익 추구를 통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등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이 의미는 있으나 그 자체가 경제적 삶의 핵심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제활동에서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더라도 공

동체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태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동체 역량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셋째, 역량 간의 포함관계에서 ‘소비(지출) 관리 역량’이나 ‘자산 관리 역량’은 핵심 역량을 구현하는 하위 기능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반대로 소비(지출) 관리 역량이나 자산관리 역량은 일정한 주제나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고 지식정보처리 역량, 문제해결 역량, 의사결정 역량 등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하위 역량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한편, ‘변화 대응 역량’은 독립된 역량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과 ‘협업 역량’이 사람 간의 협업과 네트워킹이 강조되는 시대에 중요하게 평가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2) 연구진이 제시한 경제 역량(안)의 적합성에 대한 전문가 조사결과

연구진이 제시한 경제 역량(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표 10>과 같다. 적합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 근거와 문제점 등에 대한 의견도 함께 분석하였다.

<표 10> 연구진이 제시한 경제 역량(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구분	경제 역량과 하위역량		평균
경제 역량의 적합성	① 의사결정 역량		4.54
	② 협업과 상호작용 역량		3.77
	③ 경제공동체 참여 역량		3.77
하위 역량의 적합성	의사결정 역량	① 상황분석 능력	4.62
		② 대안평가능력	4.46
		③ 해결방안형성능력	4.46
	협업과 상호작용 역량	④ 이해관계분석 능력	4.00
		⑤ 협력과정 평가 능력	3.62
		⑥ 관계 문제 해결 능력	3.69
	경제공동체 참여 역량	⑦ 시장경제이해 능력	3.85
		⑧ 경제체제문제 분석 능력	3.69
		⑨ 경제공동체 시민참여 능력	3.92

주: 평균은 5점 척도 평정의 결과임

우선, 큰 범주에서 ‘의사결정 역량’, ‘협업과 상호작용 역량’, ‘경제공동체 참여 역량’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 결과이다. ‘의사결정역량’에 대해서는 5점 척도로 표현한 적합성은 평균 4.54점이었으며, 13명의 전문가들 중에서 9명이 매우 적합하다고 하였다. 이에 비해 ‘협업과 상호작용 역량’과 ‘경제공동체 참여 역량’은 평균 3.77점의 적합성을 나타내서 ‘의사결정역량’보다 낮은 평가를 받았다.

다음은 경제 핵심역량의 하위 요소별 적합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응답 결과이다. <표 10>과 같이 ‘의사결정 역량’에 포함된 하위 요소의 적합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황분석 능력’은 4.62점, ‘대안평가능력’과 ‘해결방안 형성 능력’은 4.46점이었다. ‘협업과 상호작용 역량’의 하위 요소는 ‘의사결정 역량’의 하위 요소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이해관계분석 능력’은 4.00점, ‘협력과정 평가 능력’은 3.62점, ‘관계 문제 해결 능력’은 3.69점이었다. ‘경제공동체 참여 역량’의 하위 요소도 ‘의사결정 역량’의 하위 요소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시장경제 이해 능력’은 3.85점, ‘경제체제문제 분석 능력’은 3.69점, ‘경제공동체 시민참여 능력’은 3.92점이었다.

연구진이 제시한 경제 역량(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적합/부적합으로 판단한 이유나 역량 설정의 문제점이나 개선 보완 방안에 대한 주요 의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결정역량’과 하위 요소는 다른 역량에 비해 비교적 체계적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의사결정역량이 적용 범위가 큰 역량임에도 특정 현상이나 경제 문제 상황으로 좁히는 느낌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둘째, ‘협업과 상호작용 역량’에 대한 의견이다. 경제적 관계에서는 협업과 경쟁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협력적 측면에만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협업은 정의적 측면을 포함하는 느낌인데 현재 하위 요소는 인지적 측면인 분석, 평가 등이 지나치게 두드러졌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체적인 하위 요소의 내용이 문제해결능력에 적합한 느낌이고 협력이나 상호작용의 형식적 기능적 측면이 약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또한 경제적인 협력은 이타심을 토대로 한 협력이 아닌 개인의 이익을 위한 협력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셋째, ‘경제공동체 참여 역량’에 대한 의견이다. 공동체 참여 역량이 정의적 측면이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하위 요소인 ‘시장경제 이해 능력’과 ‘경제체제 문제 분석 능력’이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럼에도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속한 경제공동체 형성에 참여하는 능력이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강조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었다. 전반적으로 정책적이고 거시적이고 포괄적이거나 다른 두 역량에 비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

었다. 한편, 경제체제를 다루는 것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대비시키고 시장의 한계에 대한 비판적 견해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면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넷째, 사회적 배경과 맥락이 다른 독일의 경제 표준 사례를 어떠한 근거에서 채택하였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었다. 경제 과목이 사회 교과와 하위 과목이기 때문에 별도의 역량을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적 견해도 있었다. 그 밖에 역량을 세부 하위 요소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사결정역량 하나면 충분하지 않은가라는 지적도 있었다. 역량 제시의 맥락이 정보처리나 비판적 사고, 의사결정 과정 같은 역량이 개인, 소집단, 대집단(국가 공동체)로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견도 있었다.

2. 논의

1) 경제역량을 별도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가?

경제역량을 별도로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에는 두 가지 근거가 있다. 첫째는 경제가 사회 교과와 하위 과목으로 과목 수준에서까지 역량을 설정한다면 교사들의 혼란 등과 같이 학교 현장의 교육실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우선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이 실제 학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실과 거리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교육과정 총론의 핵심역량과 사회과의 교과 역량의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고, 역량과 교육과정 성취기준과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태에서 경제 과목의 역량이 더해지면 학교 현장의 교육이 파행을 보일 것이라는 점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역량이 정확하게 설정되지 않고 역량기반 교육이 착근되지 못할 때 타당할 것이다. 역량들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 경제역량의 필요성을 반박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는 경제역량으로 제시된 것들이 경제 역량으로서의 특징을 뚜렷이 보여주지 못하고 다른 과목의 역량들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점은 향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의사결정역량은 상당 부분 다른 과목보다도 경제 과목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역량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프 이해를 통한 의사소통도 경제 학습과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다고 보았다. 경제역량을 인정하는 견해는 우선 경

제 과목에서 다른 과목들보다 더 충실하게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것이다. 경제역량이 단지 소비지출이나 자산관리와 같은 경제에 특화된 주제와 결부되는 것인지, 특정 주제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 학습 내용의 일반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전문가의 주장처럼 교육과정 총론이나 사회과 역량으로 제시된 핵심역량 혹은 교과 역량이 경제 과목의 성격에 맞게 재설정될 가능성도 있다.

2) 경제역량은 학습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는가?

경제역량에 대한 관심은 경제 학습에 새로운 시각을 줄 수도 있다. 경제 학습에서 역량에 주목하는 것이 기존의 지식 내용 중심의 학습에 대한 반성과 방향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역량이 교육 분야에서 주목된 이유도 변화하는 사회에 기존의 지식 중심의 학습이 한계가 있다는 지적으로부터 출발하였다. 전통적으로 경제에서 학습 내용은 경제 지식이 중심이 되었다. 그러나 역량은 지식보다는 구체적인 경제 문제나 활동을 통하여 길러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경제교육의 초점을 역량에 두면 교수학습의 과정과 평가도 바뀔 수 있다. 특정 경제 지식을 강조하는 학습과 의사결정능력에 초점을 두는 학습은 그 과정과 결과가 같지 않을 것이다. 실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은 개념 지식 위주의 학습이 아닌 문제와 활동을 강화하는 학습일 필요가 있다.

역량을 경제학습에서 활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이 제기한 또 다른 우려 중의 하나는 역량 자체가 학습 내용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역량은 자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 관련 지식, 기능 및 사고, 가치 태도를 가르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역량이 실제 학습에서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경제교육의 내용 요소를 구체적인 맥락으로 하여 역량과 연결하는 노력이 중요하다. 역량 자체가 학습요소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맥락과 상황을 고려하여 학습요소를 역량과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경제역량을 설정할 때 주로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

경제역량을 설정하는 것이 나름 근거가 있다고 해도 경제역량을 설정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개인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관점과 관련되는 ‘공동체 역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다. 경제학에서는 전통적으로 합리적 개인을 중심으로 접근을 하였다. 그러나 행동경제학 등에서 개인의 합리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으며 게임이론에서는 협상 전략과 협력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관심의 증가 등 최근 경제 학습의 새로운 움직임에서는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공동체 관련 이슈가 강조되고 있다. 공공의 관점이나 공동체 역량을 경제역량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역량의 정의적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시민성 측면에서 가치와 태도는 경제교육의 핵심적 요소이다. 역량이 지식, 기능, 가치·태도를 함께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때, 역량에 반영할 수 있는 정의적 요소는 무엇인지, 경제역량의 한 영역이나 하위 요소로 정의적 역량을 인지적 역량과 구별하여 설정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경제역량의 전반적인 체계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의사결정역량, 문제해결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상호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 경제교육에서는 의사결정역량 하나만 가지고 나머지를 포섭하여 접근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제교육에 포함할 수 있는 역량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들이고, 이 역량들 간의 위계 혹은 포섭 관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의사결정역량과 별도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의사결정역량에 포함되는 하위 역량으로 위치하는 것이 적절한가와 같은 문제이다.

경제 과목에서는 별도의 역량을 설정할 필요 없이 사회과 교과 역량을 과목의 특성에 맞게 해석해내면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런데 교과 역량을 경제 과목의 특성에 맞게 해석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일반적인 역량에 경제 과목의 소재만 활용하면 통용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답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V. 결론

이 연구는 경제역량 설정을 위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경제역량으로 주로 논의되는 기존의 역량 사례들과 연구진이 개발한 경제 역량(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 조사를 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전문가들이 선호한 경제역량은 의사결정역량, 문제해결역량, 지식정보처리역량이었다. 의사결정역량은 전통적으로 경제교육에서 가장 강조되어온 합리적인 선택을 대변하는 것이다. 문제해결역량도 경제 문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의사결정 역량과 맥을 같이 한다.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경제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역량들은 경제 학습이 추구하는 전통적인 지향점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 다만 이 역량들을 별개의 독립적인 역량으로 볼 수 있는지, 이들을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지를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제역량으로 부적합하게 여겨진 역량은 심미적 감성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공동체 역량이었다. 심미적 감성역량이나 창의적 사고 역량은 경제 과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기 때문으로 지적되었다. 그런데 공동체 역량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은 의외의 결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별 경제주체의 효용 극대화나 이윤 극대화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주류경제학의 관점, 그리고 기본적인 인간상으로 상정하고 있는 도구적 합리성을 갖춘 인간(homo economicus)을 고려해볼 때 납득이 가는 점도 있다. 그러나 경제교육은 단순히 경제학 교육을 넘어서 ‘시민’의 관점, 즉 경제적 시민성을 추구하며 시민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사회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경제학 자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대두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공공의 관점을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 현대 주류 경제학은 수리적인 분석과 모형화에 주력하게 됨에 따라 실생활로부터 점차 괴리되어가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비판은 다양한 대안 경제학적인 접근의 등장을 통해 구체적인 돌파구를 찾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중에는 행동경제학, 정보경제학, 게임이론 등과 같이 경제학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된 이론들도 적지 않다. 또한 ‘The economy’와 같이 대학 수준에서의 경제학 교육에서 기존의 틀에 박힌 교육 방식을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이 구체적인 결과물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Core Team, 2020). 경제학을 바라보는 대안적인 관점은 공동체나 시민 등을 경제학의 주요 주제로 포함시키고자 하고 있다.

연구진이 제시한 경제 역량(안)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시민과 공동체에 대한 관점도 담고자 하였다. 역량의 분류를 의사결정역량, 협업과 상호작용 역량, 경제공동체 참여 역량으로 하였으며, 두 번째 및 세 번째 역량에서 ‘시민’ 혹은 ‘공동체’의 관점을 담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가 주로 참고한 독일의 경제역량 표준이 인지적 측면을 중심으로 하위 요소를 구성하였기 때문에 역량의 정의적 측면에 대한 반영이 미숙한 점이 있었다. 또 경제역량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안으

로 구성하는 과정이 세밀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적인 일관성이 미흡하다는 점도 단점이다. 따라서 경제 역량(안) 작성에 독일 역량 모델을 활용한 것에 대한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는 상당 부분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량을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협력,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게 한 것은 가치가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해 경제역량을 설정하는 것이 총론의 핵심역량이나 교과 역량과의 관계 등에서 위계 상 어려운 점도 있고 역량들 간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도 문제라는 점이 드러났다. 그러나 경제역량에 대한 관심은 기존의 지식 중심의 경제 학습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계기라는 점은 장점이다. 그리고 경제역량의 체계에 대한 탐색 과정이 궁극적으로는 경제 학습을 통해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라는 경제교육의 방향과 정체성을 돌아보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경제교육에서 취약했던 공동체의 관점이나 정의적 측면에 관심을 갖게 된 점도 의의가 있었다.

참 고 문 헌

- 교육부(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1].
- 교육부(2018),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8-162호 [별책 7].
- 구정화·박영석·박새롬(2019), 미래지향적 학교교육 구현을 위한 학교현장 및 국가·사회적 요구 사항 분석, 교육부 정책연구보고서.
- 김주훈 외(2017), 생애주기별 핵심 경제역량 연구: 경제교육 수요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 김준태(2015), 경제역량 개념 정립 및 척도 구성을 통한 교양 경제교육 효율화 방안, 교양교육연구, 9(2), 67-115.
- 박민정(2009),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특징과 비판적 쟁점 분석: 내재된 가능성과 딜레마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27(4), 71-94.
- 박은아(2020), 해외 사회과 교육과정 비교를 통한 역량기반 사회과 교육과정 구성의 시사점 탐색, 교육과정평가연구, 23(1), 1-29.
- 소경희(2007), 학교교육의 맥락에서 본 '역량(competency)'의 의미와 교육과정적 함의, 교육과정연구, 25(3), 1-21.
- 소경희·강지영·한지희 (2013), 교과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역량 모델의 가능성 탐색 - 영국, 독일, 캐나다 교육과정 고찰을 중심으로 -, 비교교육연구, 23(3), 153-175.
- 손민호(2011), 역량중심 교육과정의 가능성과 한계: 역량개념을 중심으로, 한국교육논총, 10(1), 101-121.
- 이근호(2013), 핵심역량 교육과정의 의미와 성격, 교육광장, 48권, 6-1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 이근호·김기철·김사훈·김현민·이명진·이상하·이인제(2013), 미래 핵심역량 개발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탐색-교육과정, 교수·학습 및 교육평가 연계를 중심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고서.
- 이미경, 서지영, 이근호, 조성민, 김기철, 유창완, 김종윤, 이재진, 윤기준(2018). OECD Education2030 교육과정 내용 맵핑 참여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보고서.
- 이봉재(2013). 미국의 학사과정 사회복지교육에 있어서 역량기반 교육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9(4), 135-154.

- 이상은 · 소경희(2019), 미래지향적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OECD 역량교육의 틀 변화 동향 분석: ‘Education 2030’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37(1), 139-164.
- 한춘희 · 신범식(2009), 핵심역량을 통한 사회과 교육과정 개발의 가능성과 한계, *사회과교육*, 48(4), 123-144.
- Core Team (2020), *The Economy*, <https://core-econ.org/the-economy/book>.
- OECD (2005),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Executive Summary*.
- _____ (2018), *The Future of Education and Skills: Education 2030. Position Paper*.
- Retzmann, T., Seeber, G., Remmele, B., & Jongbloed, H. C. (2010), *Educational Standards for Economic Education at all Types of General-education Schools in Germany*.
- Trilling, B. & Fadel, C.(2012), *21st Century Skills: Learning for Life in Our Times*, 한국교육개발원 역, 21세기 핵심역량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스킬-, 학지사.

<Abstract>

Exploration of Economic Competencies for School Economics Education

Youngserk Park* · Kyungdong Hahn** · Jaegeun Kim*** · Kyungmo Kim****

We conducted an expert survey to get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economic competenci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economic competencies that experts preferred were decision-making competency, problem solving competency, and knowledge and information processing competency. These competencies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from those traditionally pursued by economic education. However, it is worth considering whether these competencies are viewed as separate and independent competencies. What was considered inadequate for economy was aesthetic emotional competency, creative thinking competency, and community competency. It is less directly related to economic subjects. However, it is worth noting that interest in community competency is low because the perception of citizens' perspectives pursued by economic education is weak. Regarding the setting of economic competencies, it was revealed that it was difficult to establish a hierarchy of core competencies or social studies subject competencies, and the need to clarify the distinction between competencies.

Key words: Economic competencies, Core competencies, Economics curriculum, School economics education

원고접수: 2020년 11월 15일 심사일: 2020년 11월 27일 ~ 2020년 12월 21일
게재확정: 2020년 12월 21일

* First author. Professor, Dep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yspark@ginue.ac.kr)

** Professor, Dept. of Economics, Hanky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khahn@hufs.ac.kr)

***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jaegeun@kice.re.kr)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kkmkim@gin.ac.kr)